中 國 語 文 宣 敎 會 報

<제2호> 1990.1

《聖 句》

我傳福音原沒有可誇的，因爲我是不得已的，若不傳福音，我便有禍了。　　哥林多前書 9：16

내가 복음을 전할찌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이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고린도전서 9:16

순　서

1. 중국선교에 있어서의 의료인의 역할
2.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의 종교의 존재,변화관점 및 그 역할
3. 90년도 연중 사업계획
4. 12월 예산 사용내역
5. 후원 상황
6. 회원 동정
7. 알림 사항
8. 기도제목
9. 동계 중국어 강좌 안내

☞ 110—290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243번지 명휘원 3층　☎ 720—4312

중국선교에 있어서의 의료인의 역활

——중국의 병원선교 가능성———

1. 선교의 이유와 당위성

크리스챤이 선교해야 하는 이유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서 보이는 것 처럼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세상에 전파되면 예수님이 재림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속히 재림하시게 할려면 당연히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다.

2. 강사의 중국선교에 대한 접근

모태신앙이던 강사가 의과대학에서 봉사활동으로 김진홍 목사가 개척한 빈민선교 현장이던 활빈교회에서 빈민을 도우면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던 그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 육군 원주 51병원에서 근무하던중 군목의 인도로 성경공부를 하던중에 로마서 8:38~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집권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말씀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 어떻게 든지 주님을 잘 섬겨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고 의술로써 하나님을 전파하겠다고 작정하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뚜렷한 이유는 없지만 중국선교를 결심하게 되었읍니다. 그 후 기도하던 중에 본교회 집사님들도 중국선교의 뜻을 가진것을 알게 되어 1985년에 8명의 회원으로 中善會를 창설하게 되었읍니다.

3. 中善會

中善會의 명칭은 중국선교라는 목적을 가졌지만 중국의 선교를 거부하는 현지의 정책을 고려하여 宣으로 하지 않고 善으로 하였읍니다. 초기에는 선교 테이프와 성경을 사서 국동방송의 유관지 목사님을 통해서 보냈읍니다. 민항기사건 이후에는 교포들이 모국방문을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간접적인 부탁을 받고 성경을 보내주게 되었읍니다. 그러는 과정중에 遼寧城 瀋陽市에 사시는 유집사님과 만나게 되어 중국에 병원을 지을 가능성을 타진해 보게 되었읍니다. 요녕성의 병원 건축은 환영이라는 응답을 얻게 되었고 중선회 회원중에 건축사가 투시도를 그려놓고 기도하면서 접촉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또 김목사님(독일 국적소유)이 몇차례 중국 심양을 방문하여 탐색해 본 결과 중국측은 병원을 짓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하지만 언제라도 당국에서 접수할 수 있다는 단서를 요구하였읍니다. 중선회는 병원 후보지로 제 일자는 심양을 2차는 연변을 생각하고 있었읍니다.

4. 한국당국의 중국선교에 대한 시각

한마디로 부정적인데 그 이유는 현재 중국에 대한 공부가 없이 교파주의, 물량주의라는 한국교회의 부정적 모습 때문에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중국의 종교정책은 三自(自傳, 自養, 自治) 와 三定(定點, 定現,定人)으로 나타내며 병원설립은 인정하나 선교목적의 병원 설립은 거부

합니다. 외국인의 중국선교에 대해 중국당국이 아주 부정적이기 때문에 외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읍니다.

5. 중국선교의 방법

의료인이나 전문직업인들이 중국에 가서 기독교를 전하지 않고 크리스챤의 삶을 보여야 한다. 한국에 기독교가 전파될 때도 기독교 표교가 금지되어 있을 때 알렌이 민영익을 치료한 것이 계기가 되어 기독교가 전파되게 되었다. 현재 한국 목사님 한분도 대륙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같은 동료들이 그 분의 삶을 보고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6. 중국 의료선교시에 준비사항

첫째 100개의 침상을 가진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에서 30억원과 150명의 일군이 필요하다. 일군은 의사,간호원,행정직,컴퓨터 전공,취사,빨래,청소,운전기사 등 여러 방면에서 일군이 필요하다.

둘째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일군은 헌신되어 있어야 한다. 한국교인들은 주일신자 이거나 교만한 점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부서져야 한다. 중국선교는 크리스챤의 삶을 보여야 하는데 한국에서와 같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만 기독교인이지만 교회문을 나서면 세상사람이 되는 태도로는 중국인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없다. 또 한국교회가 단합되지 못한 모습을 중국에 보이는것도 중국선교에 악영향을 끼친다. 중국은 11억 인구에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이기에 한국의 중국선교 지망자가 합심하여 한지역으로 나가도 어림없을 것이다. 그런데 분열된 모습으로는 더더욱 말할 수 없다. 실례로 극동방송의 유관지 목사가 공산권선교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들려고 하였으나 각 교파에서 서로 회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가장 현저한 실례로 생각된다.

문 : 별다른 능력이 없는 가정주부도 중국 의료선교에 동참할 수 있겠읍니까 ?

답 : 병원에서는 빨래나 청소를 하려는 분이 매우 필요하고 실제로 청소하러 중국에 갔다가 위대한 선교사가 된 분이 있읍니다.

문 ; 중국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연합할 방법이 있겠읍니까 ?

답 : 크리스챤들이 교회지도자들에게 자주 말씀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방법이 있읍니다.

문 : 전주예수병원을 선교훈련센터로 이용할 수 있겠읍니까 ?

답 : 실제로 선교훈련센터로 사용해도 된다는 응답은 받았으나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한국선교 담당자의 책임입니다.

문 : 만약에 가족이 있는 사람이 선교를 떠나는 것은 어떻습니까 ? 그리고 남은 가족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떠나는 것은 어떻습니까 ?

답 : 가족의 경제 문제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활빈교회를 도울 때도 의과대학생으로 거의 무료진료를 하고 특별히 도와주는 곳도 없었지만 약이 떨어진 적이 없었고 오히려 약과 의료기구가 날이 갈수록 늘어난 예가 있읍니다. 또 일군이 주인댁의 일을 나갈때는 점심 걱정을 하지 않는 법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식사를 주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물질은 허드슨테일러처럼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의 종교의 존재, 변화과정 및 그 역할

※ 이 글은 中蘇硏究에 실린 宗堯氏의 논문으로 세차례로 나누어 연재합니다.

중국공산당 11기 3중전회에서 사상해방,실사구시를 호소한 이후 제13차 당대회에서 오늘날 우리가 처한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관한 관학적 논란을 제기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사상의 지도하에 종교분야의 몇가지 문제를 결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종교의 장기적인 존재에 관하여

마르크스주의는 종교를 일정한 역사조건의 산물로 간주한다. 원시사회에서 사람들의 사유활동은 자연법칙을 정확히 인식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일부 자연현상에 대해 신비감과 숭배감을 갖는 것이었으며, 종교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생겨났다. 계급사회에서 불평등한 경제관계는 자연이 주는 시련보다도 더 무서운 힘을 가졌으며 착취계급은 종교를 이용하였다. 따라서 문명사회 속에서도 종교는 여전히 인간들의 정신생활을 지배했다. 종교는 어느 시기에 역사에서 사라질 수 있는가?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역사가 발전하며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게 되고,사회의 물질생산과정이 전적으로 인간의 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일을 도모하고 행하는 것이 인간에 의해 이루어질 때 종교는 소멸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르크스 이후 100여년간의 사회발전은 인간이 자연계를 완전히 정복할 수 없는 한 물질 생산과정에 인간의 의식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고 인간과 자연이라는 변증법적으로 통일된 모순이 불시에 인간의 정신영역에 종교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종교의 소멸은 현재 어떠한 국가에 있어서도 모두 요원한 일이다.

과거 오랫동안 우리는 이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모순을 자세히 연구하지 않고 오히려 계급투쟁에만 초점을 맞추고 기계론적 관점을 유지함으로써 마치 종교가 폭정을 돕는 원흉이자 인간의 머리속에 잘못들어가 있는 것으로 인식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종교의 소멸만을 주장했다. 예를 들면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단지 고대사회의 노동생산력이 낮고 인간과 인간,인간과 자연간의 관계가 매우 편협하며 이러한 편협한 관념이 고대의 자연종교와 인간종교에 반영되었다고 말했다. 분명히 여기에서 말한 것은 고대사회의 생산력과 고대종교의 상호 반영관계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종교자체가 고대의 산물로서 매장되어야 하는 것이고 사회가 낙후되고 인간의 의식수준이 낮은데서 온 우매한 표현이라 간주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발전된 사회주의 국가는 종교의 존재를 빨리 제거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제13차 당대회의 보고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사회제도의 출현과 사회생산력 및 상부구조의 발전은 별개의 일임을 알 수 있다. 정권의 교체, 새로운 제도의 확립은 생산력 발전을 위한 정치적 조건을 창조하지만 이는 생산력의 비약적인 발전을 실현했다는 것과는 다르다. 전자는 비교적 단기간의 계급투쟁 혹은 혁명적 행동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으며 생산력 발전과정은 돌변적인 측면이 약하다. 인간

은 기존의 국가제도를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생산력을 크게 발전시킬 수는 없다. 종교와 같은 인간의 내적 의식은 이를 제거하고 다시 확립하기가 더욱 어렵다.

엥겔스가 상부구조는 경제적 토대에 봉사한다고 언급하면서 계급사회에서 목사, 철학자, 법률가와 국가활동가는 모두가 도덕, 종교, 정치적으로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인간에 대한 착취제도를 위장한다고 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관점을 이용하여 어느것이 종교의 잘못된 이론이며 혹은 종교가 어떻게 착취제도를 위장하는가를 연구하지 않고 오로지 종교의 반동적인 본질과 종교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반동적인 면모만을 반복 비판했기 때문에 종교는 설 땅을 잃게 되었다. 사실 엥겔스는 종교와 반동적 통치와의 관계를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피압박 군중들이 어떻게 종교를 통해 혁명을 호소하는지를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이 종교를 전도하는 사람의 유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물질적 조건과 이에 따른 세계관에 달려 있다. 문화혁명 기간을 보면 사회의 혼란으로 인해 정상적인 종교활동이 전면 금지되었지만 종교를 필요로 하는 인간들의 심리를 없앨 수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헤아릴 수도 없는 미신들이 창궐하여 종교의 복잡한 의식형태를 능가하였던 것이다.

마르크스주의는 종교를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왕왕 수천년간의 종교의 흥망법칙을 착실하게 검토하지도 않고 종교는 구사회의 찌꺼기 라는 점만을 강조하며 현대화를 위해서는 우선 종교를 비판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수차례의 충격적인 운동을 벌여 무종교구역 모델을 수립하면 종교의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구상은 실천이 증명하듯이 역사유심주의적인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고 물질적인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물질생산, 문화생산을 막론하고 모두가 낙후된 상태에 처해 있으며 인민군중들은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장악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 옛날 사람들은 화를 면하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 종교를 가졌으며 요즈음에도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이유에서 종교를 갖는다. 농촌 오지나 도시지역에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약으로도 효험이 없는 불치병을 앓고 있거나 의료수준이 낮아 질병의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종교를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해방이후 우리나라는 불필요한 혼란을 겪었으며 아직도 사회에 각종 결함과 부패현상이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회의를 느낀 사람들은 종교를 찾아 정신적인 해방을 얻고자 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주술에 이해 곤경을 벗어나려고 하다가 비참한 결과를 맞기도 한다. 만약 과학지식이 풍부하고 현재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무한한 인생과 사후의 행복을 동경하여 종교에 귀의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종교를 갖도록 유혹하는 각종 요인은 아직도 우리나라 도처에 존재한다. 제13차 당대회 이후 조자양동지는 전국정치협상회의가 개최한 다과회에서 "종교신앙의 자유는 공산당의 일관된 정책이자 국가의 법률로서 바뀔 필요가 없으며 바뀌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고 말했다. 필자는 이 말이 중국공산당이 우리나라의 종교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과거의 경험을 종합한 기초위에서 종교가 우리나라에 장기간 존재한다는 것을 재차 인식한 것으로 이해한다. 중국과 같이 생산력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문화가 발달하지 못한 국가에서 종교가 언제 소멸될 수 있는 것인가를 논하는 것은 공론에 불과하다.

90년도 연중사업계획

A. 정 기 행 사

1. 간사협의회(격주)
2. 정기세미나(매달)
3. 회지발간(매달)
4. 후원기도회(매달)
5. 수련회(하계,동계,각 3박4일)

B. 중 점 사 업

1. 번역사업
   중국기독교백년사)2월까지)
   화보 기독교와 중국(3월까지)
   중국선교핸드북(4월까지)
   출판사 선정
   후속 번역서 선정

2. 간사협의회 활성화
   격주로 모이는 정기모임시에 성경공부와 기도회를 갖기로 함

3. 회원 확보
   방통대 중문과 신편입생과 각 대학 중문과에 홍보를 강화함

4. 후원회원 확보 및 관리
   후원회원 200명에 후원헌금 120만원 목표

5. 기도후원회 활성화
   매달 기도후원회 중심으로 정기기도회로 모임

6. 회지 혁신
   활자는 옵셋으로,내용은 선교전문지 수준으로 향상토록 함

7. 선교중국어 강의 홍보에 힘씀

C. 예 산
1. 월 지출 예상액
   120만원(임대료 30,사무간사 15,연구원 15,회지 25,도서비 10,기타 25)
2. 현 월수입 예상액
   76명에 64만원의 후원헌금, 약간의 인지세, 약간의 중국어 강좌 수입등 약 50만원의 부족액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함

1월정기세미나안내

제 목 : 한,중 교역 현황과 전망

강 사 : 이 은 호 선생 (현 대한 무역협회 북지 지역과 과장)

일 시 : 1990. 1. 29 (월) 오후 7시

장 소 : 종로 2가 YMCA 뒷편 본 선교회 세미나실

회원동정

1. 정일 회원께서 모친상을 당하셨읍니다.
2. 박지석 회원께서 새해부터 방송통신대학 중국어 성경반 회장으로 봉사하시게 되었읍니다.
3. 이경혜 회원께서 지난해 소망교회에서 화촉을 밝혔읍니다.
4. 김학임 회원께서 1월 13일 충현교회에서 화촉을 밝혔읍니다.
5. 유달현 회원께서 12월 26일 부천에서 다롬 콤퓨터 학원을 열었읍니다.

그 구

정기 간행부에서 기자, 도안요원, 편집요원, 각 한 사람씩을 찾고 있읍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본 선교회 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알 림 사 항

1. 제 2차 정기세미나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7시에 본 선교회 세미나실에서 김상현 선생님을 모시고 "중국의 병원선교의 가능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개최되었읍니다.

2. 제 3차 정기 세미나가 1월 29일(월) 오후 7시 명휘원 3층 선교회 세미나실에서 이은호 선생님을 모시고 "한중교역 현황과 전망"이란 제목으로 열립니다.

3. 지난 1월에 가졌던 간사협의회에서 선교회 사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임연구원을 두기로 결정하였읍니다.

4. 동계 선교 중국어 강좌가 예정보다 한달 늦게 2월부터 3월까지로 바뀌었읍니다. 별지 광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번역사업 추진 상황은 중국기독교 100년사가 2월까지, 기독교와 중국(화보)가 3월까지 , China Mission Handbook 이 4월까지 출판사에 송고한다는 목표하에 진행중입니다.

기 도 제 목

1. 현 선교회 사무실의 임대시한인 10월 이후의 새 사무실 마련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보증금 마련,위치, 임대료 확보등)

2. 본 선교회 사역에 적합한 연구원과 그에 따른 물질(월 18만원)을 위해서

3. 올해안에 200명의 회원을 얻을 수 있도록

4. 중국선교 시리즈로 간행될 본 선교회의 번역서를 출판할 출판사 선정을 위해서

12월예산사용내역

수 입		지 출	
후원 헌금	644,000	임 대 료	300,000
		강 사 료	50,000
이전감사예배 다과비	50,000	간사급여	150,000
		우 편 료	57,380
찬조 헌금	150,000	인 쇄 비	44,000
난방기구	100,000	연 료 비	25,900
		교재구입비	18,500
		다 과 비	87,170
		사 무 비	52,220
		비 품	167,300
		식 대	6,000
계	944,000		958,470

※ 참 고 총수입 4,013,000 총지출 2,914,040

잔 액 1,098,960

12 월 후 원 상 황

박성주, 안병국, 빈미정, 박동화, 정인숙, 이지순, 서진, 김성순, 서옥희, 박정숙, 이영구, 서기원, 박지화, 유계준, 김원영, 양혜선 남덕우, 김은숙, 박혜영, 안순덕, 박영헌, 김일봉, 김승원, 이성철 용전동, 석귀희, 박성남, 이은자, 김준환, 김영숙, 김신봉, 이영희, 오부덕, 윤영자, 박운석, 허성도, 최복순, 김근수, 신홍동, 김구성, 김종원, 김상현, 김한성

동계 중국어 강좌 안내

본 선교회에서는 중국선교를 위해 준비하시는 여러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초급반과 중급반을 개설코자 하오니 뜻있는 형제 자매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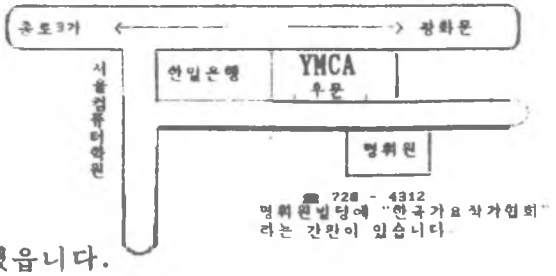
1. 초급과정

대상	각 선교회,신학교및 대학교의 중국선교 지망자 직장인으로서 중국선교를 준비하는자.
내용	발음과 기본문형,기초회화,찬송가
교재	한국방송통신대학 초급중국어 교재와 비디오테이프
기간	1990. 2.2~3.30 9주(주 2회,화요일과 금요일,19:00-21:00)
장소	중국어문선교회 강의실(종로2가 명휘원 3층 301호)
수강인원	20명(선착순)
수강료	4만원
강사	이 동 화(서울대 대학원 중문과 석사)
개강일	1990.2.2

2.중급과정

대상	각 선교회,교회,신학교및대학교의 중국선교 지망자 직장인으로서 중국선교를 준비하는자 중국어의 초급과정을 마친자
내용	중국의 역사,문화,지리,정치등 문화전반에 대한 소개
교재	中國 文化 貳拾 講
기간	1990.2.1~3.29 9주(주2회,월요일과 목요일,19:00-21:00)
장소	중국어문선교회 강의실(종로2가 명휘원 3층 301호)
수강인원	20명(선착순)
수강료	4만원
강사	이 금 복(대만 보인대학 중문연구소 석사)
개강일	1990.2.2

수강접수 및 마감

수강 신청은 1990.1.30 까지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 직접 나오시거나 전화(720-4312)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수강료는 신청시에 납입하여 주시고 전화로 신청하신 분의 경우는 아래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십시요.

송금 온라인 번호
수취인:중국어문선교회
국민은행:008-01-0454-178
상업은행:104-05-106251
조흥은행:325-1-062234
중소기업:002-01-0154-683
은행
우체국:010892-0027775
* 꼭 송금인의 이름을 기입하시면 감사하겠읍니다.